

## 2009 신종플루 상황보고 - Update 76

### □ 주간 업데이트 09.11.22 ~ 09.11.27

전 세계 207개 이상 국가 및 해외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연구 보고에서 신종플루로 7820명 이상 사망이 확인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증상이 가벼운 개개인의 사례에 대한 통계는 집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WHO는 지역 사무소, 회원국, 다방면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염병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 □ 상황 업데이트

북반구의 온대지역에서는 일찍 겨울독감시즌이 북미와 유럽 일부에서 집중된다. 북미 카리브섬과 일부 유럽인들에게 질병활동이 정점을 이룬다.

미국과 캐나다의 독감은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활성 상태로 남아있다. 미국의 질병활동은 모든 지역에서 절정기를 이룬다.

캐나다에서는 독감과 유사한 활동을 유지하지만 입원과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카리브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ILI(독감과 같은 질병) 및 SARI(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유럽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A의 99%이상이 2009년의 H1N1 바이러스였다. (이바이라스의)건강관리서비스체계에 대한 영향은 알바니아와 몰도바에서 가장 심각하다. 벨기에, 불가리아, 벨라루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등 몇몇 국가들은 이미 절정기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독감 전염은 활발하게 남아있다. 강력한 인플루엔자 활동은 몽골에서 관찰되지만 여전히 정점을 이룬다.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조금(약하게) 감소하고 있을 수 있다.

인도와 네팔, 스리랑카는 ILI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미주 및 아시아의 열대지역에서는 일부 인플루엔자 전염이 남아있지만 많은 나라에

서 독감전염이 감소하고 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열대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남반구의 온대 지역에서는 약간의 유행성 독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지난 업데이트(NO.75)이후 발생국가

- 아르메니아

○ 지난 업데이트(NO 75)이후 신종플루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국가들

-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전 유고슬라비아, 스위스, 폴란드, 튀니지,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 2009. 11. 22에 WHO에 보고된 신종플루 확인된 Case

지역	누적합계	
구분	09.11.22	
	감염자 수	사망자수
아프리카 (WHO 지역사무소)	15,503	104
아메리카 대륙 (WHO 지역사무소)	190,765	5,360
동부지중해 (WHO 지역사무소)	38,359	330
유럽 (WHO 지역사무소)	154,000 이상	최소 650
동남아시아 (WHO 지역사무소)	47,059	738
서부 태평양 지역 (WHO 지역사무소)	176,796	644
총	622,482 이상	최소 7,826